



제목	The Sultans of the Ottoman Empire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Rumuz Publishing
발행일	2017. 9.
저자	Raşit Gündoğdu
출판도시	Istanbul
페이지수	263
ISBN 또는 ISSN	978-6055112158

내용 요약

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은 제국의 황가인 오스만 가문에서 따 온 것이며, 오스만 가문은 제국의 초대 군주인 오스만 가지(Osman Gazi)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. 영어로는 오토만(Ottoman)이라고 한다. 오스만 제국 시대에 공식적으로 신민들을 가리킬 때 쓴 말은 오스만인(Osmanlı)이었다. 이 말은 오스만 제국이 소규모 부족 국가이던 시절 오스만 가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던 말인데, 제국이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중앙 정부의 관리나 군인 등 제국 지배체제의 핵심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되었다.

이 책은 622년 동안 지속된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역대 36명의 술탄들의 업적과 행적을 초상화와 관련 삽화 및 유물사진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. 오스만 제국은 역대 술탄 중 제10대 군주인 술탄이만 1세(재위 1520년~1566년) 때에 이르러 국력이 매우 막강해져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에 이르렀으며, 그 영역은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까지 확장하면서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. 술탄이만의 치세는 군사적 성공 외에도 건국 이래 오스만 제국이 형성해 온 국가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, 제도상의 파탄이 없었던 훌륭한 이상의 시대로 기록되기도 한다. 술탄이만이 죽고 난 후, 제국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는데,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대서양이 크게 번성하자 오스만제국의 무역이득이 줄어들어 내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스페인이 강대국이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지위가 19세기까지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.